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그림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지?” 각자도생의 시대에 그저 좋아서 예술의 길을 가게 된 우리 세대는 열정에만 기대어 성장했다. 선배들은 표현의 자유도 없어서 결개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잡혀갔고, 감금되고 고문당하던 시절을 지나왔다. 친구들은 일일 노동자로 일하면서 미술재료를 사서 작업하던 시대를 살았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위급하면 핏발을 들고 촛불을 들고 저항한다. 나라에서 뭘 해준 것이 있다고! 참 이상한 광주시민들이고 광주의 예술가들이다. 남도의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6개월 동안 민주광장에서 빛의 혁명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정부 한 달 만에 주권자의 위상을 찾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려면 현장의 예술가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신선하지 않은가? 고아처럼 버려진 예술계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나라를 구할 때만 나섰고 국가에 크게 요구해 본 적 없어

광주에서 미술인으로 생존하기

서일까? 뉴스에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사기꾼들이 설치는 꼴만 안봐도 살 것 같다.  
‘예술인들에게 작업만 몰입하게 할 수는 없을까?’  
첫째, 문화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문학관 등 각 분야 별 문화예술공간이 전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한 광주를 문화도시라 부를 수 있겠는가?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들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광주시의 유휴공간들을 예술공간으로 전환해 활발하게 창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예술 기획자들의 처우 개선이다. 기획자들의 아이디어나 실행력으로 창작자들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전시가 이뤄지고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관에서는 뛰어난 문화기획자들의 인건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은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배경이 돼줘야 할 것이 아닌가? 흠어져서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을 잘 엮어서 전시나 공연, 영화, AI연계 예술프로그램 등으로 대중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우리의 이야기와 예술을 세계로 알리며 교류를 하고 있는 기획자들에게 주목하고 지원해야 한다. 관과 예술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기획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창작자들의 무대가 만들어진다. 다양한 무대가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창작자들의 기본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 기본 생계비가 없어서 일일 노동자가 돼 본 작업에 몰입할 수 없는 창작자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20년 넘게 광주 화단에서 작업한 중견 화가들도 매달 100만원씩만 들어오면 작품을 한 점씩 제출하는 제도가 있다면 살 것 같다는 화가들이 많다. 이것이 현실이다.  
넷째, 장애인 예술가들과 국가폭력 트라우마 예술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가 인권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공동체 정신에 의지하고 있어서 공적 지원은 열악하다. 광주비엔날레에 아르브뤼 특별전이 지속적으로 함께 열린다면 인권도시답지 않은가! 전시무대가 체계적이지 저절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특별해 질 수 있다.  
다섯째, 유튜브와 같은 접근성이 편리한 채널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예술인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채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죽어가는 문화예술계의 생태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토론이 분분하다. 광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들,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아트와 AI특화도시 등을 잘 활용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통 크게 요구할 때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문화난장



이현  
아동문학가

“넌 몇 살이니?” 파도가 철썩이는 바닷가에서 만나는 조개껍데기는 참으로 다양하다. 크고 작은 크기를 비롯해, 모양과 색깔들이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중에서도 껍데기의 무늬가 모시로 짠 옷감의 무늬 결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졌다는 이름, 모시조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껍데기 색이 다르다. 검은빛을 띠는 흑모시인지, 흰색에 노란빛이 섞인 백모시인지를 보면 조개의 일생을 알 수 있다. 아기조개가 자라는 만큼, 껍데기도 따라 커지며 층층이 선을 이룬 조개껍데기의 나이테를 통해 조개의 나이도 알 수 있다. 2007년 아이슬란드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북대서양 대합조개의 추정나이가 507살이라니, 조개의 수명도 짧지는 않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의 아들이자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처럼 969세까지 살 수 있을까. 프랑스의 잔느 칼망 할머니처럼 122세까지 살 수 있을까. 1960년대에만 해도 52.4세에 불과했

인생의 나이테를 예쁘게

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1990년에는 71.4세를 넘어 이제는 약 83.5세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허황된 꿈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대수명의 연장이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진 않는다. 날마다 빠듯한 생활에, 결혼에서부터 자녀교육에 노후생활까지의 인생설계를 70세나 80세쯤으로 계획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힘들게 살아온 만큼이나 막막해질 것이다. 길어진 기대수명만큼이나 주어진 길고 긴 시간들을,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경제적 문제는 물론이며, 신체적 건강염려에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  
어린 시절 즐겨 불렀던 동요 중에 “나무도, 나무도 나이를 먹는다. 우리들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가사가 있다. 나무들의 나이가 궁금한 만큼이나 나무들만 보면 저절로 불려졌던 노래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동그란 나이’라는 동요의 가사처럼 나무의 나이는 나무의 결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나무를 베어야만 볼 수 있는 동그란 모양의 나이테의 개수를 통해 알 수 있다. 나이테의 모양이 언제나 똑 같은 것도 아니다.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만들어지는 춘재와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만들어지는 추재가 한조를 이루는 나이테의 모양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적당량의 비와 따뜻한 햇살에는 넓은 폭의 나이테가 만들어지며, 반대의 환경에서는 좁은 폭의 나이테가 만들어진 다. 극심한 가뭄이나 병충해나 늦서리와 같

은 열악한 환경에서는 가짜 나이테를 만들거나, 나이테 만들기를 멈추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아늑하다. 어떻게 하면 예쁜 봄매에 얼굴에 있는 주름들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애쓰고 있지만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나이는 얼굴로만 먹는 게 아니라 머리숱과 뱃살, 근 골격계, 신경계, 감각계, 심혈관계,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등을 통해서도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얼굴에 있는 주름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감춘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뱃살이 찌고 온몸이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막히는 증상들까지도 완전하게 감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25년 7월의 여름. 마음을 먹던 안 먹던, 마음에 들건 들지 않던, 우리는 오늘도 나이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나이테의 모양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나이테의 모양만으로도 나무와 조개의 일생을 알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 구성구석에 흔적으로 남게 됨을 기억하며, 이왕이면 멋지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다. 언제나 나의 몸과 마음에 새겨있는 나이테를 보며 잘했다,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단단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다운 흔적이 되길 바라며.

社說

공사 차일피일 도시철도 2호선 시민 불편도 한계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가 전담 TF 첫 회의를 열고 신속한 대응에 착수했다.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을 최대한 살펴 해결해야 하겠다. 모든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최대 관심사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개통 시기를 확정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려됐던 2호선 1단계 도로 개방 완료 시점이 공식적으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6월로, 또 12월로 6개월 더 늦춰졌다. 광주시는 지하굴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요인을 들었다. 먼저 금호지구, 백운광장, 광주역 뒤편 일원 등에서 15톤 트럭 3천700대 분량의 거대 암반이 발견됐으며, 특히 강도가 단단해 구멍을 뚫고 쪼개 파쇄하는 고난도 방식으로 제거함으로써 발파 대비 1/3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력 통신선 등 매설물도 당초 설계안보다 1.8배 가량 과다해 작업 시간이 늘어났다.  
이에 광주시는 금호지구, 광주교대-서방사거리 주변, 회재로(원광대병원사거리-주월교차로), 조선대 인근 등 4개 구간을 대상으로 복공

판과 도로면 단차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잦은 차로 변경을 실시하며 지워졌던 노면 표지가 다시 나타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 구간을 중심으로 도색을 시행한다. 정거장 주변 보행로 및 횡단보도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상의 3가지로 유형화해 30일 이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니, 착오가 있어선 안 되겠다.  
2019년 착공해 도심에서 6년째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연내 도로 개방 약속을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 제기된 민원에는 역량을 다해야 한다. 오는 9월에는 세계양궁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경기장 부근 도로에 대한 포장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토목 공정률은 92%, 도로 개방률은 42% 수준이다. 광주시는 올해 12월 2일까지 모두 끝내고 TF팀을 가동해 원만한 공사 추진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정상 개통은 언제일지 궁금하다. 그런데 2026년 말에서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실망감이 크다. 합당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며 구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내란 정점 윤석열 재구속은 전모 밝히는 중대 전환점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광주·전남 지자체장, 지방의회, 5·18민주화운동 단체 등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박정호 대령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공경”이라고 썼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비로소 정의가 다시 실현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경호법 위반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가 됐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차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10차 공판

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논총을 샀다. 신병 확보까지 성공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한다. 게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하려 했다는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는 급속도로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놀라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0%를 훌쩍 넘겨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한 찬성 여론도 70%대로 압도적이다. 불법한 비상계엄이었다.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들 체포를 시도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했다. 법원의 재구속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부합했다.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검은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철저 규명하길 바란다.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상을 낱알이 밝히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또 회복의 시간이다. 불행한 역사는 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독자투고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일 계속되는 고온다습한 날씨는 식중독 발생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 시기 119 구급대가 가장 자주 출동하는 신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 증상으로 인한 응급이송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갑작스런 복통과 구토, 설사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며 심한 경우 탈수로 인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실제 최근 한 사례에서는 냉장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도시락을 먹은 가족 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이송되기도 했다.

장마철, 식중독의 그림자 경계하세요

식중독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식중독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첫째,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둘째, 외출 후나 화장실 이용 후, 그리고 음식 조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셋째, 생선, 육류, 달걀 등은 구입 후 곧바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절대 재냉동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고기나 어패류, 계란 등은 중심온도 75℃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다섯째, 갈과 도마 등 조리

도구는 생식용과 익힌 음식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소독을 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는 식중독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구급대는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는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탁 위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대비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동현·신안소방서 신안119안전센터 소방사)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청춘들에게

손택순



※시작 노트  
구지뽕 나무에 매달린 붉은 열매는  
젊은이들의 피끓는 심장처럼  
뜨거워 보였다.  
지금의 청춘들이 저 붉은 열매처럼  
피보다 더 뜨겁게 흔들림 없이  
곳곳하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이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         |          |              |
|-----|-----|----------|----------|----------|---------|----------|--------------|
| 편집국 | 편집부 | 650-2090 | 지역특집부    | 650-2060 | 광고문의    | 650-2099 | FAX          |
|     | 정치부 | 650-2030 | 사 진 부    | 650-2080 | 마케팅본부   | 650-2070 | 광국 650-2016  |
|     | 경제부 | 650-2050 | 논 설 실    | 650-2006 | 경영지원국   | 650-2011 | 편집국 650-2017 |
|     | 사회부 | 650-2040 | T V 본 부  | 650-2009 | 사 업 본 부 | 650-2007 | 업무국 650-2019 |
|     | 문체부 | 650-2065 | 서울지사(02) | 786-9488 | 업 무 국   | 650-2020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